



프랑스, 금융거래세 도입 재확인

이혜은 연구원

■ 프랑수와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(현지시각)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거래세¹⁾ 도입을 재확인함.

- 프랑스는 오는 8월부터 금융거래에 대해 0.1%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‘로빈후드세’, ‘토빈세’라고 불리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, 이 세금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됨.
- 이로 인해 약 10억 유로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유럽위원회(EC)는 지난해 9월 증권과 채권 거래에 0.1%, 파생상품 거래에 0.01% 세율의 세금을 부과해 연간 550억 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는 금융거래세 도입 방안을 제안한바 있으나, 영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.
 - 유럽 재무장관들은 이 같은 방안을 오는 3월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.

■ 이번 금융거래세의 대상은 프랑스 내에서만 거래되는 금융상품인데 CDS 이외의 모든 파생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됨.

- 현재 주요국의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현황을 살펴보면,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우리나라, 스위스, 대만, 홍콩 등에서 부과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대만이 유일함.
- 대만은 1999년 주가지수 선물상품을 상장하면서 거래세(0.05%)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의 대부분이 싱가포르로 이전됨.

■ 바루앵 재무장관은 유럽연합(EU) 의장인 헬레 토르닝-슈미트 덴마크 총리에게 유로존 9개국 명의의 서한을 보내 프랑스가 올 여름 도입키로 한 금융거래세 초안이 EU 회원국들에 회람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.

1) 모든 금융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, 이를 통해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줄임으로써 지나친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자고 1970년대 초에 제안한 경제학자 Tobin의 이름에 따라 일명 ‘Tobin세’라고도 함.

- 이 서한에서 금융거래세는 현 금융위기 타개 및 시장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함.
- 서한에 서명한 9개국은 프랑스, 독일, 오스트리아, 벨기에, 스페인, 핀란드, 그리스, 이탈리아, 포르투갈 등이며, 올해 상반기에 금융거래세 초안이 회람되는 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함.

(Financial Times 등, 2/13)